

Chapter 39. 인종의 벽결이 용단

1848 년에 미국이 캘리포니아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인구는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쓰는 7,500 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지 수십년전만 해도 캘리포니아 인구는 “앵글로”들이 압도적이라 언급되었다. 이 부정확한 단어는 영어를 말하는 백인들에 대한 잘못된 명칭인 “백인”이란 의미로 쓰여졌다. 캘리포니아 초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라틴계들이 최대 그룹을 이루면서, 인종적으로 소수계들이 캘리포니아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20 년대 경에는 멕시코와 기타 남미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수천명의 예전 노동자들이 더 나은 고용 기회를 찾아 북쪽으로 국경을 넘어오게 되었다. 2 차 대전이 발발한 후, 미국에서 노동 부족이 너무나 심각하게 되어, 연방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들은 말 그대로 “도우는 사람들”이란 의미의 *bracero* 들이라 알려졌다.

전쟁 후 여러 해 동안,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치솟았다. 2002 년 경에는 그 수가 800 백만 이상에 달했고, 캘리포니아는 어떤 다른 주들보다도 더 많은 불법 외국인들을 가지게 되었다. Los Angeles 하나만도 전국 어디보다도 더 많은 이런 이민자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 Los Angeles 는 멕시코 시티밖에서 멕시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실제로, Los Angeles 는 “제 3 세계의 수도”라고 묘사 되어졌다. 여러분은 “제 3 세계”가 서류를 갖추지 않은 외국인들의 실제적인 구멍 뚫린 체 역활을 San Diego 와 Tijuana 국경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그 사람들 중에는 멕시코인들 뿐 아니라 살바도르인들, 코스타리카인들, 니카라과아인들, 쿠바인들, 구아테말라인들, 그리고 에쿠아도르인들도 들어 있다.

서류를 갖추었건 아니건 간에, 이들 라틴계 이민자들은 종종 고장났다는 딱지가 붙었다. 비판자들은 이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 동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류를 갖춘 이민자들은 동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도착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 많은 라틴계 가정들이 중류 생활의 꿈을 이루었고, 그들을 사회의 “변두리에”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멕시코계 후손들로 열심히 일하는 영주권자들은 또한 점점 더 공직에 선출 되기도 한다. 1996 년 주의회는 Dinuba 이발사의 아들인 2 선의 Cruz Bustamante 를 큰 박수 속에서 사상 최초의 라틴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고용 자격을 주는 위조 서류들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고 있다. 수백만의 이런 불법 외국인들은 캘리포니아의 복지, 교육, 그리고 의료 체계에 주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지만,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을 합법화 해주자는 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정부의 역할인 이민 개혁이, 절박할 정도로 필요한 것이 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들, 노동조합들, 그리고 인종 단체 로비들 모두가 필요한 법적인 개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1986 년의 이민 개혁과 통제 법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은 국경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 법은 많은 숫자의 서류를 갖추지 않은 외국인들을 사면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면 제안들은 더욱 많은 숫자의 불법 이민자들이 도착하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아시아계 사람들과 라틴계 사람들은 미국에 친척을 둔 유럽 사람들에게 유리한 이민법을 바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1996 년,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대중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해, 유권자들은 Proposition 187 과 209 를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헌법을 개정토록 했다.

화난 백인 주민들은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의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정부 보조에 제한을 가하기를 바랐다. “인종, 성별, 피부색, 혹은 민족에 따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끝내려고 한 Proposition 209는 여러 해에 걸친 적극행동 (차별 받아온 소수 민족이나 여성의 고용과 고등 교육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획: affirmative action)을 끝내려는, 살짝 감추어진 시도였다.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Proposition 209에 대한 수많은 법적인 도전들을 시간을 끌면서 시도했다. 그 법안이 소수계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소수계 계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는 그들의 무서운 예상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0 년대를 통해서 University of California 의 흑인계 미국인 평의원인 Ward Connerly 는 모든 소수계들을 위해 적극행동에 대한 맹공격을 이끌었고 그 범위가 전국에 걸쳐지게 되었다. Connerly 는 적극행동 법들이 자격이 안되는 학생들을, 그들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는 순위가 높은 대학들이나 칼리지들에 입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소수계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입학한 후에는 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많은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완전히 떠나 버렸다. Connerly 의 논점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쿼타만을 채우고, 받아들인 소수계 학생들을 진정으로 돕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심지어 자격을 갖춘 소수계 학생들도 적극행동에 따른 입학 자체의 존재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그들이 단순히 “들어 오게 허용되었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또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오는 기술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의 반발이 Connerly 의 관점을 받쳐 주었다.

TABLE 39.1 California's Population in Transition

GROUP	1990 Pop.	% OF TOTAL	1999 Pop.	% OF TOTAL
White	17,089,221	57.1%	16,526,103	49.9%
Latino	7,775,669	26.0%	10,459,616	31.6%
Asian	2,766,862	9.2%	3,763,072	11.4%
Black	2,131,952	7.1%	2,205,359	6.7%
Am. Indian	186,407	0.6%	190,971	0.6%
Total	29,950,111		33,145,121	

Counties in which whites no longer compose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and the estimated year that whites lost majority status.

Alameda	1993	Monterey	1993
Fresno	1991	San Benito	1992
Imperial	1990*	San Francisco	1990*
Kings	1994	Santa Clara	1999
Los Angeles	1990*	Tulare	1995
Merced	1994		

*May have occurred earlier. Source: U.S. Census Bureau

게다가, 부분적으로는 교육과 소득의 불균형과 연관되어, 인종간의 그리고 민족간의 분열이 계속 일어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는 서비스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라틴계 사람들보다 3 배나 더 고등학교를 마치고, 6 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두배라고 했다. 라틴계 사람들은 혜택이나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저임금 직종들에 갇혀 있는 것이었다. 외국 태생의 히스패닉 사람들의 반 이하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불법 체류자들이 주 정부가 재정을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려는 소동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더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계속 캘리포니아로 밀려 들어오자 2 중 언어 교육이 특히 공격을 받게 되었다. 주 유권자들의 61%가 승인한 Proposition 227 은 대부분의 2 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철폐하게 했다. 그 당시, 약 140 만의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이 영어를 거의 못했다. 2 중 언어 교육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공하려면 꼭 영어를 말하고, 읽고, 쓰기를 절실하게 배워야 할 소수계

학생들에게, 그것이 실제로는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스페인 말이나 여러 말을 쓰는 교실로 분리하는 것이 해를 끼친다고 단언했지만,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은 “영어만 쓰기 (English-only)” 운동을 이민자들을 배척하려는 이유로 지지했다.

백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간에, 스페인어를 쓰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때는 백인 노동 계층의 요새였던 Santa Ana 는, 이제는 겨우 12%만이 백인이다. 2001 년에 미국 인구조사국은 Santa Ana 주민들의 76%가 스페인어를 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최고의 비율이다. Anaheim, Riverside, 그리고 Los Angeles 또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비율에서 전국 10 위안에 드는 도시들이다. 캘리포니아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비율 (39%)에서 전국 최고를 보여준다.

TABLE 39.2 California: A Multilingual Society

LOCATION	ENGLISH ONLY	SPANISH	ASIAN/ PACIFIC ISLAND	OTHER
Santa Ana	15%	76%	8%	1%
Los Angeles	41	42	9	8
Anaheim	44	43	8	5
San Jose	50	21	23	6
San Francisco	58	11	24	7
Long Beach	58	26	14	2
Fresno	59	32	7	2
California	60	26	9	5
Riverside	60	33	6	1
San Diego	61	23	13	3
Oakland	66	18	11	5
Sacramento	72	12	9	7
United States	82	11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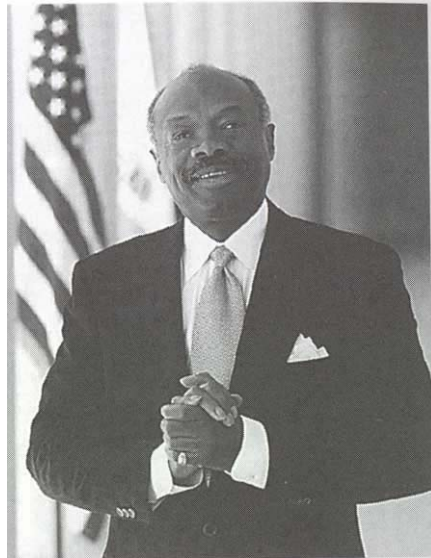
Source: Census 2000 Supplementary Survey.

불법 이민자들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이민 귀화국 (INS)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오늘날 San Diego 에서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여행하는 운전자들은 요금 징수소같은 INS 검문소들을 지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검문소에서, 무장하고 유니폼을 입은 INS 요원들이 손짓만으로 통과되지만, 차량에 불법 이민자들을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도로 가로 불러 내어져 검사를 받게 된다. 발각된 불법 이민자들은 멕시코 국경 너머로 되돌려 보내지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밀입국 시키다가 잡힌 사람들은 누구나 체포되게 된다. 국경 순찰대와 이런 밀수꾼들이나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 때로는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흑인계 미국인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흑인계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Los Angeles 와 San Francisco 는 흑인 정치인들을 선출했다. 1980 년, Willie Brown 은 주 의회 최초의 흑인 의장이 되었고, 나중에 San Francisco 의 첫 흑인 시장으로 봉직했다. 그러나, 많은 흑인들은 환상을 갖지 않고 있다. 좋은 동네의 제약을 가하는 계약들과 범죄의 증가, 그리고 도시 청소년들의 장기간에 걸친 실업등이 캘리포니아의 흑인계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쳤다.

1990 년대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라틴계 인구가 흑인 유권자들의 표의 힘을 잠식해 들어간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고용 시장의 여유가 줄어들음에 따라 인종간 불화가 Compton 과 기타 흑인 커뮤니티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South-Central Los Angeles 에서도 흑인 주민들은 그들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지만 흑인 종업원들을 고용하기를 거절하는 아시아계 상인들에게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번 돈을 다른 곳에서 쓰며, 흑인 커뮤니티에게는 아무 것도 돌려 주지 않는 듯했다. 아시아계 사람들이 골목 가게들과 커피점들을 더 많이 사 들임에 따라 양극화는 더 증가했다.



San Francisco 시장 Willie Brown

최근 수년 사이에, 물건을 훔치는 의심을 받은 흑인들이 화난 가게 주인들에 충격을 당한 후, 한국인들이 소유한 몇몇 Los Angeles 편의점들은 소이탄 공격을 받았다. 흑인 가장들은 또 라틴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고 정기적으로 불평했다. 흑인 갱단들이 라틴계 라이벌들과 충돌함에 따라,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때로는 통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흑인들, 한국인들, 그리고 시카노들 사이의 분열을 수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1992년 4월, 경찰에 제지를 당한 후 체포에 저항하던 흑인 운전자 Rodney King을 때린 혐의를 받은 2명의 Los Angeles 경찰이 무죄로 풀려나자, Watts 근처에서 27년만에 처음으로 더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다. 비록 제3자가 경찰들이 앞드려 있는 King을 분명히 때리고 차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했지만, 첫 재판에서는 경찰들 아무에게도 유죄가 내려지지 않았다. 판결 후, South-Central Los Angeles에 있는 흑인들이 분노하여 거리로 뛰쳐나갔고, 방승으로 잘 보도된 폭동이 일어나, 거의 통제 불가능한 혼란 스런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는, 모든 인종들을 포함하는 범법자들이 King 판결을 핑계로 물건들을 훔치고, 차에 갇힌 백인 운전자들을 폭행했다. 약 5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화범들은 기존 비즈니스들을 불 질렀는데, 그들중 몇은 아시아계 사람들 소유였다. 건물들이 약탈 당하고 불타 재가 되어 버린 후, 몇몇 주인들은 다시 가게를 열기를 거절해, 흑인 동네에 더욱 적은 수의 서비스가 남게 되어 버렸다. 혼란 중과 이후에 체포된 수천명 중에는 라틴계, 백인들, 흑인들 뿐 아니라 불만에 찬 아시아계 사람들도 있었다.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된 후, 약 5천명의 베트남 피난민들이 갑작스럽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되었다. “Little Saigon”이라 알려진 오늘날의 Westminster는 북미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되었다. 베트남전쟁으로 집을 잃은 수천명의 라오스 사람들과 캄보디아 사람들 또한 Los Angeles와 Orange County로 오게 되었다. 한편, 베벌리 힐즈에서는 값비싼 Rodeo Drive를 따라 외국인 가게 주인들이 그 Los Angeles 교외 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센 유태계 미국인들과 이란계 커뮤니티들로 만들었다.

1950년대경 니세이(2세대 일본계 미국인들)들은 Boyle Heights를 떠나 근처의 Monterey Park로 옮겨갔고, 20년 뒤, 그 커뮤니티는 “아시아 사람들의 베벌리 힐즈”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1990년경에는 그 곳은 58%가 아시아계 미국인들, 그리고 30%가 라틴계가 되었다.

비슷한 경우로, 10 년이 지난 뒤, Glendale 의 아르메니아 주민들은 그곳 인구의 30%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예전에는 백합처럼 흰 백인들 커뮤니티였던 그곳은, 아르메니아 청소년들과 히스패닉 청소년들 사이에 갭단 싸움을 겪게 되었다. South Gate 는 미국 본토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주류가 된 유일한 타운이 되었다. 더 북쪽으로 가서는,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San Francisco 근처에 있는 Daly City 에 거주하게 되었다.

아시아 사람들과 라틴 사람들 모두 Los Angeles 의 Watts 와 South-Central 지역의 다수 흑인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2001 년경에는 East Los Angeles 는 96.8%가 라틴계가 되었다. 그해, 모든 종류의 언어들을 헤아렸을 때, Santa Ana 인구의 84%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거대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동안, 백인들은 Baldwin Park, Rosemead, El Monte 같은 교외 지역들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백인들의 도주” 라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전의 주류 백인들은 오래된 집들을, 돈을 잘 받고 팔고 떠난 것이다. 백인들은 La Verne, Claremont, San Dimas, Diamond Bar 같은, 덜 비싼 은퇴자들의 피난처로 옮겨 갔다. 남가주를 통해서, 식당 메뉴, 교통 신호, 그리고 심지어 거리 낙서들 까지도 라틴계와 아시아계 사람들의 문구와 취향을 보이게 되었다.

종교적인 다양함 또한 캘리포니아의 풍부한 다문화주의를 보여 주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불교 신자들의 약 40%가 남가주에 거주한다. 그 지역의 새로운 건축물에는 무슬림,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운 모스크, 교회, 그리고 사원들이 있다.

모든 외국인들이 어쩔수없이 한가지 생활 형태로 동화될 것이라는 신화는 “인종적인 다양성”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몇몇 비판자들은 조각 조각으로 쪼개진 사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염려한다. 개별적인 인종 그룹들은 실제로 단결을 해친다. 각 민족이 고유 방식을 고집하면 다른 그룹들에 대하여 적대적이 될 수 있다.

조각나고 대립하는 것은 소수계들 사이에서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들은 수십개 나라들 출신들이다. 스페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 쿠바 사람, 또는 살바도르 사람들로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 베트남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홍콩과 대만 출신의 부유한 중국인들이 “맨 위로 바로 옮겨 온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그들이 다른 아시아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집과 차를 소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부에 더하여, 원래 어느 계층 출신인지, 언어 능력은 어떤지, 그리고 교육 상태는 어떤지가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새 땅에서 가난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한 역할을 한다. Los Angeles 에는 “코리아 타운”이 Olympic Boulevard 와 Vermont Boulevard 를 따라 신속히 등장했고, 그곳은 서울 밖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되었다.

아시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면하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여겨진다. 아시아인 십대들은 백인들보다도 더 적은 비율로 학교를 중퇴한다. 몇몇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영어도 잘하고 좋은 기술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도착한다. 이들 부분적으로 미국화가 되어있고, 상층 계층의 새로 온 사람들은 일자리의 맨 아래에서 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그들은 빈번하게 의료, 컴퓨터, 전문 엔지니어링이나 재산 관리 부분에 들어간다. 아시아계 이력들은 경제적인 성공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취를 이룬 곳에 나타나기도 시작했다. 1974 년, 중국계 미국인이자 전 Oakland 입법부 의원이었던 March Fong Eu 는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으로 선출되었다. 흑인들이 단지 6.5%에 정체되어 있는 동안, 아시아계 인구는 11%에 이르렀다. 여러 도시들이 이러한 강력한 외국 인구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Fremont 는 학생의 40%가 아시아계이고, San Marino 의 아시아계는 주민들의 1/3 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오래 거주할수록 그들은 더 부유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보통,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며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게 된다. 아시아계 사이의 고용율은 특히 높고, 공공 보조 요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이주에 따른 한가지 결과는 캘리포니아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상업의 중심이된 것이다. 식료품, 고철, 종이, 오렌지, 면화, 그리고 쇠고기가 San Pedro 와 San

Francisco 항에서 나가고, 컴퓨터 마이크로칩들과 TV 셀들이 교환되어 들어온다. 수천대의 자동차들이 아시아 컨테이너선들에서 계속 하역 되어지고 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 새로 발표한 인구 숫자는 이전의 추정치들을 갈아 치워 버렸다. 1990 년대를 통하여, 캘리포니아는 330 만의, 외국에서 태어난 주민들을 더하게 되었고, 그들중 3/4 이 멕시코와 아시아에서 왔으며, 캘리포니아 인구의 26%를 이루게 되었다. 어떤 한 인종이나 민족도 캘리포니아 인구의 다수를 이루지는 못한다. 2000 년, 캘리포니아의 백인들은 1990 년의 57%에서 줄어들어, 47%로 소수가 되었다.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아마도 캘리포니아의 원래 정착자들이었다는 그들의 위치를 다시 알려줄 운명인듯 하다. 다른 라틴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다른 그룹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그들의 출산율 때문이다. 미국 히스패닉들의 절반이 이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 살고 있다. 2000 년 인구조사 수치는 중동계 후손이나 무슬림들에 대한 단 하나의 항목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구 조사국의 질문 문항들이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것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1 년 9 월 미국에 대한 무서운 테러 공격이 있는 후, 몇몇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은 분노한 대중들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미국을 떠났고, 다른 사람들은 속도가 느려진 미국 경제 때문에 미국을 떠났고, 또 다른 요인은 군대에 징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게다가 2001 년 공격이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더 강화된 국경 통제 때문에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게 되었다.

한편, Los Angeles 와 San Diego 는 여전히 여러 나라 말이 쓰이는 입국항이 되고 있다. 인구학자들은 2030 년이 되면, 라틴계와 아시아계 후손들이 캘리포니아 인구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캘리포니아의 원래 인디언들은 타운이나 도시 또는 약 100 군데의 작은 보호구역들에 흩어져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인종의 만화경 (kaleidoscope)이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미국내의 어떤 다른 지역 보다도 더 많은 외국 출생 주민들이 살고 있다. 느슨한 이민 정책이 초래한 심한 이주 압력이 캘리포니아 사회를 극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1970 년 까지만해도 캘리포니아 인구의 80%가 영어를 쓰는 “백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140 가지 언어가 쓰여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지난 10 년 사이에 도착했다. 새로 귀화한 이민자들은, 등록된 유권자들로써 꾸준히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2001 년, 인구 증가의 결과, 의회로 가는 캘리포니아 대표들의 의석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났다. 새로운 의석은 Los Angeles County 의 라틴계가 주류인 구역을 대표하도록 만들어졌다.

인구 증가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2030 년경에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숫자가 5 천만에 이를 것이고, 이들중 20% 이하만이 백인들일 것이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모자이크는 다민족 사회에서 어떻게 권력을 분할할 것인지를 사람들이 찾아낼 필요가 있도록 한다. 심지어 최근에 도착한 합법적인 이민자들조차도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비록 느리지만, 백인들, 흑인들, 라틴계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들 사이에 인종간의 융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류 문화에로의 편입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발을 맞추어가고 있다.